

## ‘사찰 경내지 무단 사용’ 법적 대응

### 조계종 문화재사찰추, 정부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조계종이 사찰 등의 없이 경내지에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설치·운영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찰 등의 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은)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은)는 이날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문화재관료에 대한 시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문화재관료 시비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들에게 개방,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안이다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인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은 불법이므로 무효다 △만일 사찰의 동의하에 전통사찰 경내지 내 ‘탐방로(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정·설치·운영할 경우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문화재보호나 자연보전 등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소유권 침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해 종교활동,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보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

라며 “사찰과 불교계는 현재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을 잘 보존 관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까지 전승해야 한다는 큰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시민환경단체와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다.

▲조계종, 문화재관료로 문제로 강경수=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강경수를 둔 것은 문화재관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립공원인장포 폐지 후 각종 언론에서 문화재관료로 징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로 정부와 조계종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1월 17일 이치범 환경부장관과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은 문화재관료로 문제가 단순히 매표소 위치조정 문제가 아닌,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중요성, 불교문화재 분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등 복합적인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측과 조계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료 제도개선협의회(이하 제도개선협)’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도개선협은 실무소위원회를 두고 10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조계종, 시민환경단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실무소위에서 조계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료 제도개선 관련 요청 사항을 제출했으나 정부측

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또 6월 5일 열린 5차 실무소위에서 시민환경단체가 탈퇴 및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27일에는 정부측이 ‘국립공원 내 사찰대표소 단계별 이전 추진계획(안)’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정부, 조계종 요청 사항에 ‘부정적’=조계종이 4월 26일 열린 2차 실무소위에 제출한 요청 사항은 9가지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범의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전통사찰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귀속 △사찰 토지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국립공원 정부 직접 관리 △국립공원 관리부처의 합리적 조정 △문화유산의 제도적 체계화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범의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 불교계 기관 양성에 대한 제도적 인정 △전통사찰 내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대해서만 수용 및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의견을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2면에서 계속>



승가원 홍보대사 딸린트 이세은씨의 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딸린트 이세은씨가 7월 4일 승가원을 방문해 위촉패를 받고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세은씨는 “장애를 가졌지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승가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세은 어린이들이 활짝 웃으며 반기고 있다.

글·사진=박재만 기자 jwpark@buddhapia.com

### 碧巖錄

역사학·언어학·기독교학·철학·종교학·문학

역자 석지현  
 강의내용 벽암록의 성립배경과 가치·읽기방법 등  
 일시 7월 19일(목) 오후 7시  
 장소 출판문화회관 강당(서울시 강남구 02)735-2701  
 대상 150명 선착순(예약접수처 우선)  
 수강료 1인 1만원  
 접수방법 전화로 예약(02-2004-8233) 후계좌입금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명세))  
 시연행사 예약자 선착순 100명 불서 1권 증정  
 주최 현대불교신문사(buddhanews.com)

### 깨달음과 금욕의 관계는?

고대 민족문화연구원·불교학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종교적 깨달음과 구원에 있어 ‘금욕’은 필요조건일까 충분조건일까?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홍규) 국제한국학센터(소장 조성택)와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는 8월 2~3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 삼성관에서 ‘금욕과 깨달음 (Celibacy and Enlightenment)’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민족문화연구원 창설 50주년

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와 시즈카 사사키(일본 하나조노대), 신화학 리사 이셔우드(영국 웨스턴대) 등 해외 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논의를 끈다. 조성택 교수는 “역사·철학·종교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금욕과 종교적 구원의 상관관계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보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n.com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전호준/선재호/선요기/선기홍/선무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점  
 02) 763-2980  
 종로, 서회령, 송파, 안산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품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익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복장익식, 상향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부처님 법 나누기  
 용정운(www.zentoon.com)

신발을 사귀는 이에게는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이고..  
 미용실에 가려고 마음먹은 이에게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만 보입니다.  
 새 옷을 사귀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겠지요...  
 일상 속에 넘쳐나는 부처님법 또한 보려고 하는 이에게는 보입니다.

##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울려 지는 멋있는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株)平建